

◆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며,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이를 적극 검토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

□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동향

○ 유럽의 주요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발표한데 이어 독일, 중국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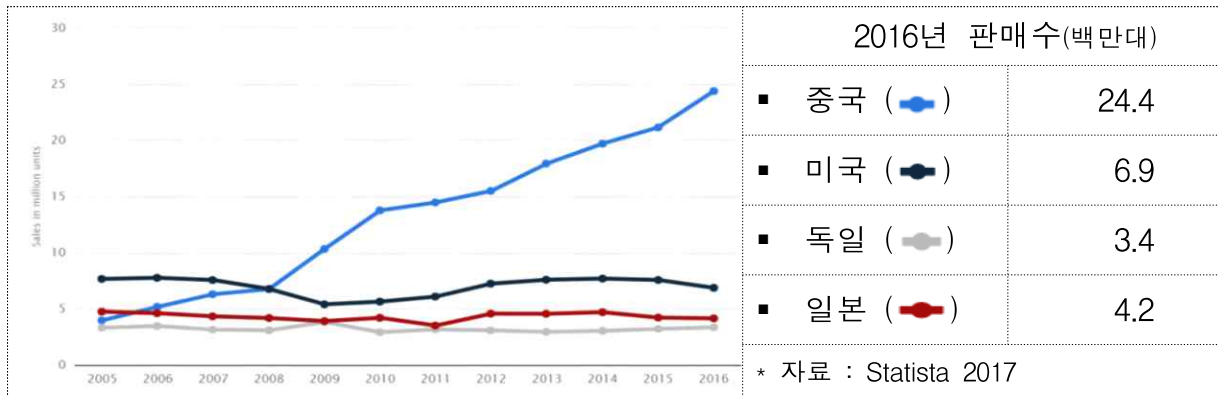
<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 동향 >

국가	추진현황
노르웨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합의(2016.6) - 수도 오슬로에서 2017년부터 디젤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금지 조치 - 일반승용차, 단거리 버스, 경량 트럭은 무공해 차량만 등록하는 방침
네덜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하원 통과(2016.4) - 신차에 대해서만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 - 법안의 최종기결시,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나,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가능성에 주목
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40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(2017.7) - 예산 지원(30억파운드)과 함께 경유 차량에 대한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
프랑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(2017.7) - 1997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와 2001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점차 퇴출
독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6년 10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연방하의원 통과를 이끌어내진 못함 - 자동차 산업이 독일 산업의 중추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
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(2017.6) -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유차는 수도 뉴델리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
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,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중 - 다만, 판매 중단 시기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시기와 연계하여 고려 중

□ 세계 자동차 시장 동향

- 중국의 시장규모는 세계 1위로 미국, 독일, 일본의 판매량 합계보다 높아 전세계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 발표에 주목
 - 판매 중단 시기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연계하여 고려하고 있으며, 2018년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 등 전기차 확산 정책 추진

< 주요 국가별 승용차 판매추이 >



- 기존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자동차 전환 및 개발 계획을 발표
 - 푸조와 시트로앵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PSA 그룹은 2023년까지 전체 판매 차량의 80%를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차량으로 대체할 계획
 - 볼보는 2019년부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, 소형 가솔린 엔진과 대형 전기배터리를 결합한 이른바 '마일드 하이브리드'만을 생산
 -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개발에 집중해왔던 도요타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을 발표
- 우버는 2019년 말부터 런던 내 자사 우버엑스 서비스의 모든 차량을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

□ 시사점

- 유럽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는 대기 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됨
- 독일의 경우, 자동차가 산업의 중추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럽 연합 차원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-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에서도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준비가 필요함

<출처>

1. 수요관리 부문

- 해외이슈 <글로벌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동향>
 - 노르웨이,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합의 (ChosunBiz, 2016.06.05.)
 - Britain bans gasoline and diesel cars starting in 2040 (CNN, 2017.07.26.)
 - 프랑스, 2040년까지 모든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판매를 중단.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원자력 의존도를 현재의 75%에서 2025년까지 50%로 낮춘다는 계획 발표 (인데일리, 2017.07.22.)
 - Angela Merkel: Germany could ban gas and diesel (CNN, 2017.08.21.)
 - 여야 “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중지”결의안 재출 (뉴스토마토, 2017.09.05.)
 - 유럽 이어 중국도 휘발유·디젤차 중단 추진...업계 판도 바뀌나 (연합뉴스, 2017.09.11.)
 - 인도 “2030년부터 100% 전기차만 판매 가능”...기업들 준비 박차 (연합뉴스, 2017.09.11.)
 - 네덜란드, ‘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불가’법안 추진 (MOTOYA, 2016.04.19.)
 - 노르웨이, 전기차 주차세금 무료...2020년 首都 오슬로에 디젤·가솔린車 진입 금지 (ChosunBiz, 2017.03.15.)
 - 노르웨이 ‘친환경차 혁명’...전기·혼합형이 신차의 과반